

코로나19 방역강화 긴급 대책회의

전주시, 김승수 시장 주재 화상회의 35개 동 동장·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참여

전주시는 21일 35개 동 동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강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전국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4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까지 의료대응 역량 초과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각 소관 시설별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전주시는 21일 35개 동 동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강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주재한 화상회의에서 행정 최일선에 있는 동장을 중심으로 연말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백신 접종 적극 독려 등 대시민 홍보에 힘써 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6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강화 지침을 발표했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

이후,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지역업자, 시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잠시 멈춤'을 통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18세 이상 3차 백신 접종, 12~17세 소아청소년 등의 기본 접종의 적극적인 참여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콘텐츠페어 'X-콘텐츠마스' 개최

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4일까지 실감형·미디어 분야 콘텐츠 체험·기술정보 공유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VR·AR제작거점센터에서 2021 전주콘텐츠페어 'X-콘텐츠마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작·지원한 기업들과 함께 실감형 콘텐츠와 미디어 분야 콘텐츠를 체험·소개하고 최신 콘텐츠 트렌드와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메가트렌드, 메타버스'와 'K-뉴딜 인사이트'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구직자의 만남 '취업톡톡' △1인 셀러, 실시간 라이브 방송 △3D펜 랜선클래스를 통한 3D프린터 온라인 체험 등이 있다.

컨퍼런스의 경우 1일차에는 전화성 썬앤티크 대표와 박진영 엔터테인먼트 대표, 최은석 디스트릭트 부사장, 최재홍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메가트렌드, 메타버스'를

주제로 미래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연다. 2일차에는 김필수 네이버 리더와 심인범 KBS 기술감독, 신정현 단국대학교 교수, 신상희 가이아3D 대표가 'K-뉴딜 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 구인·구직자의 만남 '취업톡톡'은 구인·구직자간 1:1 심층상담과 온라인 토크쇼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여기업의 경우 1일차에는 VR·AR 분야 △코코아비전 △(유)나인필스 △솔루션뱅크플러스 △(주)에스지오코리아 등이, 2일차에는 스마트미디어·3D 분야 △올몰 스트림웨이즈 △(주)연유 △가넷 △두이앤지(주) 등이 구직에 나서며,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인셀러,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역 한복제작기업인 '리슬'이 네이버 라이브쇼핑을 활용해 '오, 한복한 인생'을 테마로 한복판매와 성공스토리를 소개한다. 지역 대표 뮤지션 그룹인 '이상한계절' 밴드의 생생한 라이브 공연과 앨범 판

매도 이어진다.

첫 날 행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라이브커머스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라이브 방송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참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북VR·AR제작지원센터 내에 조성된 XR스튜디오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 중인 중소벤처 개발사와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XR 관련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올 한해 지역에서 제작·지원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미래 콘텐츠 산업에 대해 공유하는 이번 자리를 통해 전주의 우수한 콘텐츠 기술과 기업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이 발전하고 관련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부실채권 소각행사 열고 18억2400만원 시민 빛 탕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21일 시민들이 지고 있는 18억2400만 원의 빚을 탕감해줬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이날 제6차 전주시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열어 전북은행이 보유한 신용채권 중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202건의 장기 부실채권을 4대 중단의 후원을 통해 소각함으로써 채무자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열어줬다.

소각행사 후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4대 중단 대표자, 설은주 주빌리

은행 대표, 이성란 전북은행 부행장이 참여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 2016년 개소 이후 전주지방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 및 부채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금융복지상담 1만 99건 △취약계층 채무 탕감(1088억원) △부실채권 소각(82억 54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액채무지원제도 및 채무조정을 운영해 현재까지 61억1600만 원의 빛 탕감을 도왔다.

이병관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법사금융 및 채무 상환 독촉으로 고통 받는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빛 탕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약성 채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일 것"이라며 "중요한 채와 지역금융권이 함께 힘을 합쳐 금융취약계층의 빛 탕감을 도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에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최은 이병관 이사장은 전주시복지재단의 설립 취지를 계승하고 전주형 복지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병관 이사장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단 한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

업 △간병비 지원사업 △복지공동체 활성화사업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관 이사장은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등 전주시복지재단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주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혁신·만성지구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순항

전주시, 2022년까지 총 100억원 투입 10ha 규모 조성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이 착착 조성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전주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에 10ha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지역 주변에 염면적이 넓은 수종의 나무를 다중으로 식재함으로써 인근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이는 동시에 열섬현상을 완화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올해까지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했다.

지난해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남쪽부지와 농촌진흥청 서면부지, 농수산대학 남쪽부지 등 3곳에 스트로브잣나무 등 42종, 3273그루의 교목과 꽃대나무 등 19종, 1만2997그루의 관목이 식재됐다.

올해에는 염순근린공원과 혁신도시 내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혁신도시우미린2차 아파트 옆 원충녹지 등 6개소에 칠엽수 등 39종, 4102그루의 교목과 수수꽃다리 등 26종, 1만8365그루의

관목, 구절초 등 23종, 4260본의 초화류가 심어졌다.

시는 내년에는 만성지구 일원의 완충녹지에 2.5ha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 4월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대규모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밀려있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미세먼지 저감숲이 조성되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열섬현상이 완화돼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 9명 선정

전주시는 최기우 최명희문화관 관장(47세) 등 9명을 제32회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시 예술상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10개 분야 예술인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예술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분심사 등 두 번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수상자에게는 문학 부문의 최기우 최명희문화관 관장을 포함해 △음악 부문 김동식(58세) 호남오페라단 부단장 △국악 부문 강혜숙(60세) 강혜숙국악춤연구소 대표 △무용 부문 김지정(45세) 전주예술고등학교 교사 △미술 부문 이희춘(58세) 선재미술관 관장 △사진 부문 박용덕(78세) 사진

작가 △연극 부문 박규현(44세) 창작극회 대표 △영화 부문 백정민(45세) 영화감독 △건축 부문 이행욱(55세) 건축가가 선정됐다. 연예 부문은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990년부터 시상해온 전주시 예술상에는 지난해까지 총 20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